

다문화교육의 실제와 적용*

오 성 배
(동아대학교 교수)

I. 다문화사회로 변화와 다문화가정 학생

- 한국사회는 국제결혼, 외국인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들어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등의 외국출생 다문화가정 학생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표 1> 초·중·고 재학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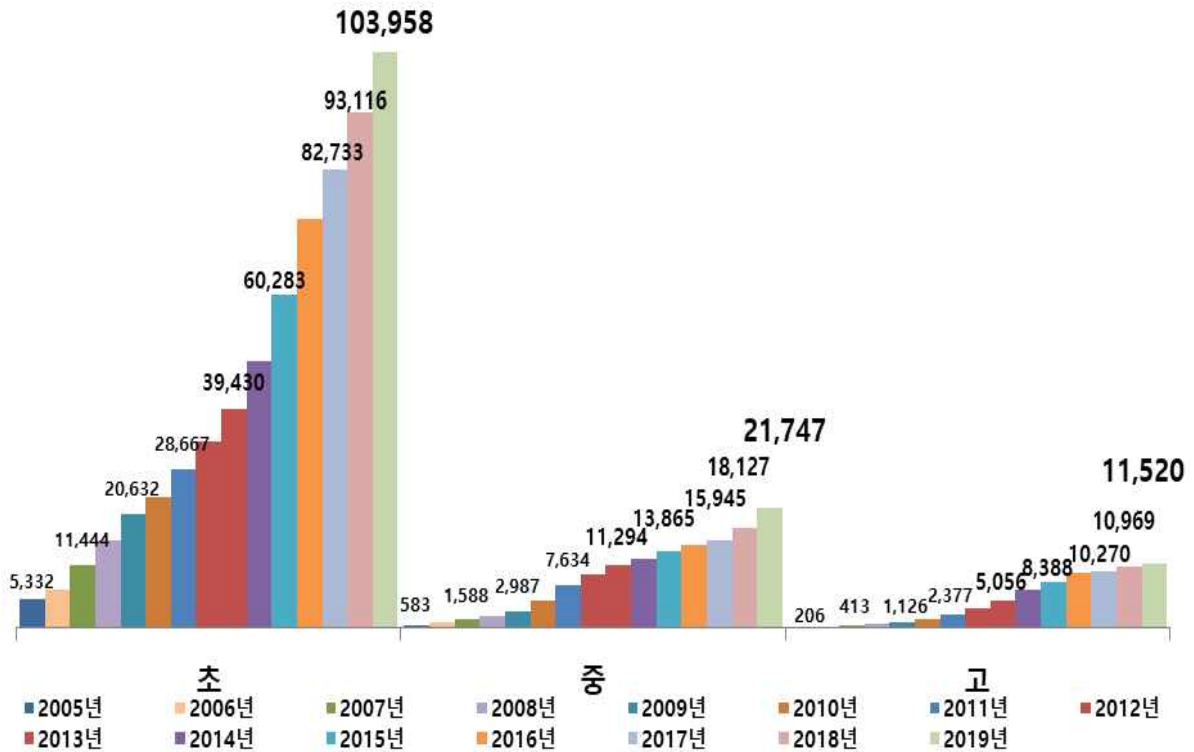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유형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계
		국내출생 자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북한 출생	제3국 출생	
학교 급	초	83,602	5,148	15,131	237	640	104,758
	중	15,891	2,131	3,671	288	450	13,617
	고	8,464	1,220	1,550	378	374	8,445
합계		107,957	8,499	20,352	903	1,464	139,175

※ 출처: 2019년 교육통계연보(교육부, 2019)

-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2005년도의 6,121명인 것에 비해 2019년도에는 137,225명으로 약 22배 가량 증가하였음.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에 비하여 중학교, 초등학교로 학교급이 내려갈수록 그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학교에 재학할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가 많아질 것임을 시사함([그림 1] 참조).

* 이 글은 인하대학교의 '2020년 다문화교육콜로키움'을 위한 자료입니다. 인용하시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출처: 각년도 교육통계연보(교육부, 2005-2019).

- 현재 대다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경험은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임. 특히, 상당수가 교육 접근, 경험, 성취 즉, 교육의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관련연구들은 취학률과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도, 학업중단을 등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경험은 일반 청소년과 다른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과 상황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경험의 질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함. 청소년시기에 달성해야 할 과업 중의 한 영역인 진로와 관련된 역량이 다문화가정 학생에게도 요구됨.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진로 탐색, 진로 관련 역량 강화,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또한 적절한 진로교육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Ⅱ.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특성과 진로 실태

1.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적 특성

- 다문화가정 학생의 유형은 이주공간(국제이주, 국내이주)과 이주경험(본인의 이주, 부모의 이주)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2).
- 다문화가정 학생은 언어, 문화, 법적 지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외국인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 일반 청소년과 다른 교육적 특성을 가질 수 있음.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유형에 따라 특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오성배, 2010).

<표 2> 다문화가정 및 자녀의 유형

가정 유형	자녀 유형	
국제결혼 가정	초혼가정	한국 출신 母 + 외국 출신 父의 자녀 한국 출신 父 + 외국 출신 母의 자녀
	한부모가정	父 또는 외국 출신 母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재혼가정	전처 소생의 한국출신 자녀
		외국 출생 후 한국에 입국(귀화)한 자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외국 출생 자녀	
	한국 출생 자녀(무국적 자녀)	
북한이탈 주민 가정	북한이탈 주민 자녀	
	제 3국 출생 자녀	
난민 가정	난민 가정 자녀	

※ 출처 : 오성배(2010). 다문화교육 정책의 과제와 방향 탐색.

-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연구들(남부현, 김연이, 2011; 류방란, 오성배, 2012; 설동훈, 2017; 오상철 외, 2013; 오성배, 2005; 오성배, 2009; 우현경 외 2009; 이상호 외, 2014; 이재분 외, 2008; 조영달 외, 2009; 천호성, 박계숙, 2012; 최성보, 2011 등)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적 특성

을 언어, 문화, 심리정서, 가정의 교육지원,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 등으로 접근할 수 있음.

-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 측면을 분석한 연구들(류방란, 오성배, 2012; 오성배, 2005; 우현경 외, 2009; 조영달 외, 2009 등)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일상과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의 유형에 따라 한국어 구사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
-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표면적으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처럼 보임. 그러나 실제 연구들은 외국출생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다른 측면에서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학교의 학습 상황에서의 한국어 구사능력 이른바 ‘학습 언어’를 구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됨. 선행연구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어휘와 단어, 문법적으로 완성되고 복잡한 형태의 문장 등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낮은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어휘와 단어를 선택하여 표현하고, 적절한 맞춤법에 따라 완결된 문장으로 작문하는 능력도 낮은 상황임을 설명함(오성배, 2005; 조영달 외, 2009).
-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중도에 입국한 청소년(중도입국청소년)들은 모국어를 습득한 상황에서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입국하여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중도입국청소년의 50%정도가 입국 당시 한국어 수준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정도였다고 응답했음.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수준’이 30%, ‘거의 못 알아듣는 수준’이 18.4%, ‘조금 알아듣는 정도’가 24.7%로 한국어 수준이 낮은 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2).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들은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자녀와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자녀로 구분할 수 있음. 이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에 따라 국내 체류의 가능여부, 공교육 진입의 기회가 다름.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는 부모가 모두 외국 출신이기에 새롭게 한국어를 습득해야 하는 실정임(오성배, 2009).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는 영유아기부터 10대 후반에 이를 정도로 연령대가 매우 다양하므로 한국어 습득 속도가 다를 수 있음.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마찬가지임. 어머니가 탈북여성이지만 중국에서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긴 경우가 많고 아버지가 한족인 경우,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거나 간단한 의사소통은 되더라도 한국어 이해 능력은 낮은 경우가 많음(무지개청소년센터, 2011).
-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 제3국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기초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일상과 학교생활에서 제약이 많은 상황임. 그리고 일상과 학교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한국어 수준에 이른다하더라도 일반적인 교과 학습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류방란, 오성배, 2012).
- 다문화가정 학생은 다른 언어, 풍습, 제도, 종교, 사회관계에서 성장한 부모의 가치관과 생활태도는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수용해야 할지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함(최성보, 2011).
-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한국사회의 문화를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 외국 출신 어머니가 결혼과 동시에 입국하고 출산과 양육, 가정교육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음(오성배, 2007).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출생 다문화가족 자녀의 문화 특성은 어머니의 문화적응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중도입국청소년은 성장 도중에 한국으로 입국하였다는 특성과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는 부모님이 모두 외국출신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한국의 의식주 문화, 가정문화, 학교문화, 또래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 특히, 한국의 교육제도와 높은 교육열로 인한 교육문화는 출신국의 교육문화에 익숙한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임.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부모들은 한국의 교육제도와 자녀 교육의 참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형편임.
-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 교육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적응은 학교생활에 대한 낮은 이해와 참여로 연결되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천호성, 박계숙, 2012).
- 또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낮은 자아 존중감, 심리적 불안,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 등 심리정서 측면 발달을 이루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함.

-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데 인색한 국제결혼가정의 아버지들로 인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이재분 외, 2008).
-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주로 부모의 재혼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게 됨.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정의 해체, 별거, 재결합, 타국으로의 이주, 새 가족 구성원과 관계 형성 과정은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심리·정서적 불안과 위기 경험을 가져다줌(고남정, 오성배, 2016). 몇몇 선행연구들(석희정, 하춘광, 2015; 이은미, 김성수, 2012; 좌동훈, 2014, 한은진, 2012)에 따르면,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 입국 후 정착과정에서 우울감, 무력감 등을 느끼거나 문제를 해소하거나 극복의 계기를 갖지 못하여 자아정체성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실정임.
- 북한이탈가정 자녀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이주 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족해체와 중국에서의 은신 생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거치는 제3국에서의 불안한 상황 등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무지개청소년센터, 2012).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하나원 교육생 중 약 2.5%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경험한다고 함(통일부, 2009). 특히 보호자 없이 홀로 북한이탈과정을 거치고 한국에 입국한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은 이주 과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음(무지개청소년센터, 2012).
- 이처럼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새로운 언어와 가정, 학교, 사회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매우 큰 스트레스로 각인되어 여러 가지 정서적 우울, 불안, 좌절 등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큼. 이러한 맥락에서 Harker(2001)는 일반적으로도 국가 간의 이주 자체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라고 보았음.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과 심리·사회적응 발달에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국가 간의 이주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다문화가정 학생의 일상과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과 직업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소외계층에서 소득은 자녀의 학업성취 및 진로 설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들은 밝히고 있음(구인회, 2003; 김순규, 2011; Duncan & Brooks-Gunn, 1997).

-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사교육을 비롯하여 자녀의 교육 및 진로와 관련한 지원 부족으로 이어져 학업수행과 진로 준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음.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자칫 무관심과 방임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은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자녀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전경숙, 이의정, 2012).
-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외국 출신 부모의 특성으로 인해 적절한 교육 기회와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부모들은 대부분 여느 학부모와 다르지 않게 자녀 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에 높은 열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조영달 외, 2009).
- 그러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가정 환경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외국 출신 부모의 제한적인 한국어 능력과 한국의 교육문화에 대한 부족한 경험 및 이해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참여하고, 한국 출신 부모의 낮은 교육 참여도로 인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 기회와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힘(조영달 외, 2009).
- 외국 출신 부모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고 있음(이상호 외, 2014). 자녀의 숙제를 도와줄 때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고학년이 될수록 학습 내용이 어려워져 학습을 돌봐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이상호 외, 2014).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부모들은 한국어 능력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학교활동 참여에 소극적이며 교사와 정보교류도 적은 편임.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부모들은 한국의 높은 사교육 의존도로 인하여 부담을 느끼며, 학부모들 간의 정보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자녀의 학습 지도를 위한 교육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다문화가정 학생 학부모들의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낮은 이해와 참여로 이어지고, 학교 숙제, 과제물 챙기기, 등교하는 일, 학교회의 참여 등 조력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남(천호성, 박계숙, 2012).

- 한국 사회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클 뿐 아니라, 외국인을 동료나 친구,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비교해 혈연이나 가족관계로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인 특성을 보임(황정미 외, 2007).
- 지금까지 수행된 관련연구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언어, 문화, 심리정서, 가정의 교육지원, 사회구성원들의 시각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갖는 이러한 교육적 특성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진로는 일반 청소년과는 다른 특성이 갖는다고 할 수 있음. 중도입국청소년이나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는 교육 접근의 측면에서 학교 진입이라는 장벽에 부딪힐 수 있기에 이들에게 진로의 출발은 공교육 진입 여부의 단계부터라고 할 수 있음.
- 학교에 진입하더라도 다문화가정 학생이 갖는 교육적 특성으로 인해 교육 경험의 측면에서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결손이 누적될 수 있음. 결국 교육 결과의 측면에서 일반 청소년과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확대될 수 있으며, 낮은 학업성취도로 인해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여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음.
- 요컨대,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적 특성으로 인해 교육 접근, 교육 경험, 교육 결과의 측면(오성배, 2006; 오성배, 2009)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 준비, 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음.

2.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 실태

-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에 진학하는 데 나타나는 어려움은 취학률과 학교 진입의 문제로 살펴볼 수 있음.
- 다문화가정 학생의 취학률은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는 97.6%, 중학교 93.5%이고, 고등학교는 89.9%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취학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취학률과 비교해보면, 초등학교 취학률은 97.6%로 전체(98.5%)에 비해 0.9%p 낮고, 중학교는 2.8%p, 고등학교는 3.6%가 더 낮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취학률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임(여성가족부, 2015).
-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에서 학교 진입의 문제는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임. 한국의 제도권 학교에서는 아직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한 현실임.

- 이혜원 등(2010)의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입학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전체의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비자문제로 공교육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34.3%, 학교 측의 입학거부도 15.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만으로 입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교에 진입할 때에는 문제가 되기도 함. 특히 부모 모두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 정보 부족과 입학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교 진입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학교 진입은 교육 기회 제공의 측면으로 한국어를 잘 못하거나 체류 자격이 불안정하더라도 보장되어야 하나, 제도적, 인식적으로 미흡한 상황임(무지개청소년센터, 2011).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처한 상황이나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으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이 더욱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였음(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7, 류방란 외, 2012; 박희훈, 오성배, 2014; 이재분 외, 2008).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798명 가운데 62.7%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언어, 집단따돌림 등의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음(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7).
-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초등학교 진학단계에서부터 학교생활 적응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상위학교로 진학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누적되어 일반 청소년과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임(박희훈, 오성배, 2014).
- 성공적인 학교생활 적응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이 누적되는 상황은 이들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박희훈, 오성배, 2014).
- 학교생활에서 불리함과 부적응을 경험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그에 따른 학력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오성배, 박희훈, 2018).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전반적으로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낮으며, 학교급이 올라갈

수록 우수학력 비율이 낮아지고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신진아 외, 2012).

- 국어, 사회, 수학, 영어 등 5개 교과목에서 모두 다문화가정 학생이 일반 청소년보다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일반 청소년에 대비하여 볼 때 나타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력부진은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초등학교에서는 사회 과목에서 중학교에서는 수학 과목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것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력부진이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더욱 확대·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력부진이 사회 과목과 같이 문화의 차이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과에서 시작하여 수학 과목과 같이 상급학교 진학에 핵심역할을 하는 과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시사함(오성배, 김성식, 2018).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력부진은 단순히 일반적으로 학습부진을 발생시키는 배경 요인의 영향과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적 특성이 동시에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오성배, 김성식, 2018). 다문화가정 학생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학업성취를 높이는 요인 면에서 취약한 동시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력부진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들도 존재한다는 것임.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력부진은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한 학교에서의 학습경험과 심리정서 특성과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음(오성배, 김성식, 2018).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력부진은 진학, 진로의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학업성취도가 낮을 경우, 이것이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진로 효능감을 낮게 함.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낮은 진로 인식과 진로효능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발달을 더디게 함.
- 국내출생 다문화가족 자녀는 학교 취학에 어려움이 전혀 없지만,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도와 높은 학업중단율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 학업중단율이 높은 이유로는 가정형편이나 친구, 선생님 관계 등을 지적할 수 있음(설동훈, 2017).
-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다문화가정 학생 99,186명 가운데 876명(0.9%)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는 0.7%, 중학교 1.2%이고, 고등학교는 1.5%로 전체 학업중단율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학업중단율은 전체(0.5%)에 비해 0.2% 높고, 중학교는 0.6%, 고등학교는 0.2%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교육부, 2017). 이를 통해 다문

화가정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둔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그냥 다니기 싫어서’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편입학 및 유학준비(18.7%), 학교공부의 어려움(11.5%)과 같은 학업 관련 이유가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도 학비 등의 가정형편(10.8), 돈을 벌기 위해서(10.1%)와 같은 경제적 이유 순임(무지개청소년센터, 2016).
- 특히,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니트(NEET) 상태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비중이 주목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의 니트 비율은 20.3%이나 중도입국청소년의 니트 비율은 32.9%가 니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여성가족부, 2012).
-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다니기 싫다’는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니트 상태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초기 적응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와 계획을 확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적 특성과 진로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진로탐색, 진로준비, 진로결정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인식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음(조혜영, 양계민, 2012). 진로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유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제한들이 진로와 진학에 대해 무기력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가중하고 있음. 체류신분상의 문제, 편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 실적인 문제로 작용함. 편입학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신의 진로를 유예하거나 일찌감치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조혜영, 양계민, 2012).
 -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특성 이해, 한국의 진로 및 직업 세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따라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진로 정보를 잘 획득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지 못하기도 함(오성배, 서덕희, 2012).

- 자신뿐 아니라 외국 출신 부모의 배경 등 가정의 교육지원에 따라서도 진로 특성이 다를 수 있음. 다양한 문화적 기반이 강점이지만,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문화에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며, 사회적 관계망이 좁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진로탐색과 진로준비의 기회가 제한적인 경우가 있음.
- 다문화가정 학생은 학교급에 따라 진로특성이 다른 상황임(김충기, 2004).
 - 초등학교의 경우 진로 인식단계에 해당하며, 이 시기는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발견하고 자아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직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기 진로포부를 형성하는 단계임.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흥미 발견과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있음.
 - 중학교의 경우 진로 탐색단계로 능력, 적성,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아개념을 구체화하고, 자신의 진로계획을 잠정적으로 수립하고 직업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시기임. 다문화가정 학생은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이 힘들고(박희훈, 오성배, 2014) 학업부진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아(오성배, 김성식, 2018) 자신의 진로탐색을 유예하기도 함.
 - 고등학교는 진로 준비단계로 진로, 진학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과 학교를 선정하여 준비하는 단계임. 다문화가정 학생은 상위 학교로 진학을 포기하거나 충분치 않은 진로 의식수준으로 인해 진로 탐색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과정으로 인해 진로 의식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임. 진로 탐색과정을 거친 학생도 부족한 사회적 관계망과 한국 직업세계의 인지 부족으로 진로 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상황임.
- 다문화가정 학생은 저학년에서 고학년,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대학 진학에 대한 의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이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학업능력, 이주배경으로 인한 사회적 한계 등을 인지하면서 대학 진학보다는 현실적인 진로를 선택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류성창, 김성기, 김재우, 2015).
- 다문화가정 학생이 졸업 후 직업생활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일이 다문화가정 학생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역량에 미치지 않는 허드렛일이 많고 일이 힘들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직업 개념보다 낮은 수준의 일이라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류성창, 김성기, 김재우, 2015).

- 진로와 진학에 있어 불리한 상황이 놓여 있음에도 다문화가정 학생은 진로에 대한 포부가 높고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에 대한 욕구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조혜영, 양계민, 2012).
- 다문화가정 학생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 및 성적으로 절반 이상의 청소년(58.2%)이 고민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진로·진학이 33.5%, 직업이 24.5%의 순임(무지개청소년센터, 2016). 일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 학생 또한 성적, 진로, 취업이 가장 큰 관심이자 고민인 것을 알 수 있음.
- 전국 17개 시도의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기관 공교육 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등 청소년들과 무소속 청소년들 5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개인적인 고민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54.5%가 진로문제가 고민이라고 응답함(배상률, 2016).
-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요구와 함께 최근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문화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와 관련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진로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나, 현재까지 추진된 정부 차원의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방안은 초기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남성희, 전종설, 2013).
-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가진 문화배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진로역량과 연계하는 등의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청소년을 위한 진로 연구와 진로지원 방안 마련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제공되는 진로탐색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다문화가정 학생의 유형과 학교급을 고려한 진로교육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이 미비한 상황임.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과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한 자신의 미래를 찾아나가는 내적힘을 키워줄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은 부모의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하게 되면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중요함.
-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진로문제가 부모 혹은 본인에게 익숙한 문화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발달과업이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일반 청소년들과 동일하지 않은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오성배, 서덕희, 2012; 조영달, 2006).

- 진로선택과 결정 등 진로문제와 관련된 진로탄력성은 개인이 진로 상황에서 겪는 여러 가지 위기와 역경을 잘 극복해내어 자신이 목표로 세운 진로목표를 잘 달성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김미경, 2013).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은 진로탄력성을 발전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임.
- 다문화가정 학생은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등의 여러 가지 발달과업들을 수행해야 하는 과도기적 시점으로 진로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크며, 특히 현재의 적응이 이후의 적응 체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로탄력성이 더욱 고려되어야 함.

참고문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2).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 초기적응 지원방안 연구.
- 고남정, 오성배(2016). 학교 재학과 학교 밖 기관 이용 여부가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2(4), 271-289.
- 교육부(2005-2019). *교육통계연보*.
- 김미경(2013). 전문대학생 진로탄력성 척도 개발.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김진희(2015). 진로정체성, 진로통찰력과 진로탄력성이 대학생의 취업 의지에 미치는 효과. *직업과 고용서비스 연구*, 10(1), 47-56.
- 남성희, 진중설(2013). 아동, 청소년 다문화 프로그램 연구에 대한 경향분석. *청소년학연구*, 20(3), 129-282.
- 류방란, 오성배(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 기회와 적응 실태. *다문화교육연구*, 5(1), 29-50.
- 류방란, 오성배, 박균열(2011). 외국출생 동반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석희정, 하춘광(2015).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가족생활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31, 1-35.
- 여성가족부(2012). 2012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15). 2015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오성배(2006). 한국 사회의 소수 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Kosian)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오성배(2009).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0(3), 305-334.
- 오성배(2010). 다문화 교육 정책의 과제와 방향 탐색. *교육사상연구*, 24(2), 149-170.
- 오성배(2011). 다문화교육 정책의 교육사회학적 탐색.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261-289.
- 오성배, 김성식(2018). 다문화 학생의 학업성취 실태와 영향 요인 탐색. *교육논총*, 33(2), 215-234.
- 오성배, 서덕희(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2), 517-552.
- 이은미, 김성수(2012). 정서·행동장애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시계열적 자기이야기(self-narrative)분석. *발달장애연구*, 16(4), 171-193.
- 이지연(2017).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진로교육.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 이혜원, 김미선, 석원정, 이은하, 신순영, 이경숙, 최은미(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혜영(2011). 미국의 이주 아동, 청소년 적응 지원 프로그램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3(1), 1-25.

조혜영, 양계민(2012). 중도입국청소년 학업실태 및 진로포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 복지연구, 14(3), 141-168.

좌동훈(2014). 중도입국청소년의 출신 국적과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 사회적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 97-126.

최성보(201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2(4), 105-130.

한은진(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문화적응경험을 통한 적응과정과 유형 분석.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London, M. (1983). Toward a theory of career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8, 620-630.

London, M., & Mone, E. M. (1987). *Career management and survival in the workplace*. San Francisco, CA: Jossey-Bass.